

5월 4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5월 4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3

hsjeong@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지표 개선 '고맙네' 다우 8,200선	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시는 등락을 반복한 끝에 상승 마감했고 다우지수는 8,200선을 회복했고 나스닥지수는 9주째 상승세를 이어갔음.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44.29포인트(0.54%) 오른 8,212.41에 거래를 마쳤음. S&P500지수는 4.71포인트(0.54%) 상승한 877.52를, 나스닥지수는 1.90포인트(0.11%) 상승한 1,719.2를 기록했다. 기업 실적 부진이 부담이 됐지만 제조업과 소비심리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3대 지수는 결국 상승세로 마감했음.
제조업 소비심리 개선	미국의 4월 제조업 경기 하강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음. 미 공급관리협회(ISM)는 4월 ISM지수가 전달 36.3에서 40.1로 올랐다고 발표했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인 38.4를 웃돈 수치임. 이 지수가 50일 경우 제조업 경기가 하강하고 있음을 나타냄. 레이몬드제임스앤어소시에이트의 스콧 브라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최악의 하락세는 지났다"며 "오랜 과정을 거쳐 바닥을 벗어난 뒤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음.
美 4월 차판매..현대차 '선방'	제너럴모터스(GM)의 4월 차 판매는 17만2150대로 33% 줄었고 과산보호를 신청한 크라이슬러는 1년전보다 48%나 감소했음. 포드는 판매가 13만 4,401대로 32% 감소했지만 토요타보다는 앞섰다. 토요타의 판매는 12만 6,540대로 42%나 감소했다. 닛산은 37.8%, 혼다는 25.3% 줄었음. 이에 비해 현대차는 4월 차 판매가 13.6% 감소한 3만 3,952대를 기록, 미국 빅3는 물론 일본 자동차회사들보다 양호한 성적을 냈음. 이날 GM과 포드의 주가는 각각 5.7%와 4.8% 떨어졌음.
유가, 배럴당 53달러	국제 유가는 강세로 정규 거래를 마쳤다. 4% 이상 오르며 최근 4주래 최고치까지 치솟았음. 옥상업거래소(NYMEX)에서 6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날보다 배럴당 2.08달러(4.1%) 오른 53.2달러로 마감했음. 4월 소비심리가 개선됐고 제조업 경기 하강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났다. 앞서 시간외 거래에선 원유 재고 증가에 대한 우려로 유가가 하락세를 보였음.

제목	주요 내용
IMF "올해 한국 재정건전성 G20 5위"	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경기 부양 및 재정 지출 보고서를 통해 G20 회원국들의 적극적 경기 부양에 따른 과다한 재정 적자를 경고했으나 한국,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일부 회원국의 재정 상황은 상대적으로 건전할 것으로 평가. IMF가 예상한 올해 한국의 재정 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2%로 G20 회원국의 평균인 -6.6%의 절반 수준.
해외투자 수입 21년來 최대 감소	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중 해외 투자소득 수입은 33억 4,9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0억8,170만 달러에 비해 44.9% 줄었음. 이 감소폭은 1988년 1분기(-48.1%) 이후 최대. 투자소득은 작년 1분기 39.5%, 2분기 27.3% 등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다 3분기 -5.5%, 4분기 -1.9% 등으로 마이너스를 나타냈음.
삼성폰, 1분기 세계시장서 함박웃음	시장조사업체인 SA(스트래티지스트 애널리틱스)는 3일 "삼성 휴대폰이 지난 1분기 세계 `톱5` 휴대폰업체 가운데 최고 성과를 냈다"고 밝혔음. 이같은 성과는 삼성전자가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터치스크린폰과 쿼티메시징폰 시장에서 매력적인 제품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 SA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글로벌 휴대전화 시장점유율 1위와 2위는 각각 노키아와 삼성전자가 차지. 뒤를 이어 LG전자, 모토로라, 소니에릭슨 순이었음.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